

3. 전라남도 항목

- 3-1 결혼에 대한 견해
- 3-2 자녀에 대한 견해
- 3-3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
- 3-4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3-5 저출산의 주요 원인
- 3-6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 3-7 월평균 가구 소비
- 3-8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가구주, 1순위 응답)
- 3-9 청년지원정책
- 3-10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 3-11 스트레스 정도 - 1) 가정생활
- 3-12 스트레스 정도 - 2) 직장생활
- 3-13 스트레스 정도 - 3) 학교생활
- 3-14 스트레스 정도 - 4) 전반적인 일상생활
- 3-15 집 주변에 빈 집의 수와 방치 정도
- 3-16 빈 집의 활용방안
- 3-17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 3-18 귀농어, 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 3-19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생활폐기물
- 3-20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음식물쓰레기
- 3-21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재활용쓰레기
- 3-22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3-23 여가활동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복수응답)
- 3-24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방안
- 3-25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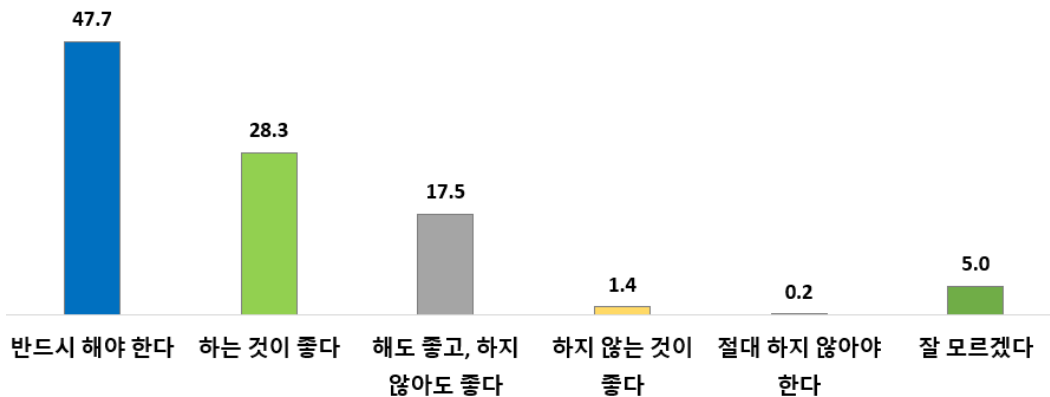
3-1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에 대한 견해 「긍정적」

• 결혼에 대한 견해로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이 47.7%로 가장 많고, 「하는 것이 좋다」(28.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17.5%) 순으로 나타남.

- 「부정적」(1.5%) 응답보다 「긍정적」(76.0%)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81.9%), 중부권(72.6%), 북부권(66.8%) 순으로 나타남.
- 남자(74.0%)보다 여자(78.2%)의 「긍정적」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결혼에 대한 견해



[표 3-1]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구 분	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2022년 < 지역 별 >	100.0	47.7	28.3	17.5	1.4	0.2	5.0
중 부 권	100.0	53.8	18.8	16.9	0.6	0.3	9.7
북 부 권	100.0	38.7	28.0	24.8	3.9	0.2	4.3
서 남 부 권	100.0	49.0	32.8	14.4	0.5	0.1	3.1
< 성 별 >							
남 자	100.0	44.2	29.8	17.7	1.5	0.1	6.7
여 자	100.0	51.7	26.5	17.4	1.3	0.2	2.9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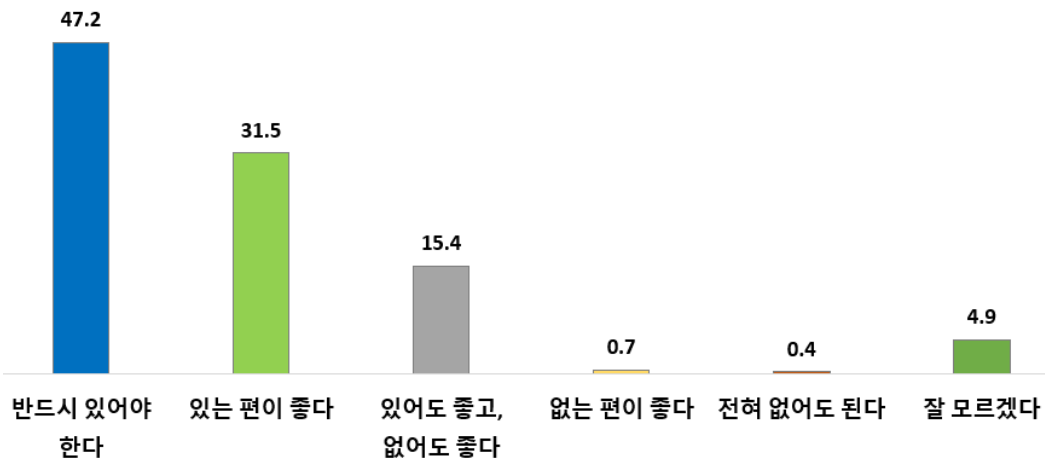
3-2 자녀에 대한 견해

자녀에 대한 견해 「긍정적」

• 자녀에 대한 견해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응답이 47.2%로 가장 많고, 「있는 편이 좋다」(31.5%),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15.4%) 순으로 나타남.

- 「부정적」(1.0%) 응답보다 「긍정적」(78.7%)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85.4%), 중부권(75.1%), 북부권(68.0%) 순으로 나타남.
- 남자(76.7%)보다 여자(80.9%)의 「긍정적」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에 대한 견해



[표 3-2] 자녀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는 편이 좋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없는 편이 좋다	전혀 없어도 된다	잘 모르겠다
2022년 < 지역별 >	100.0	47.2	31.5	15.4	0.7	0.4	4.9
중부권	100.0	55.3	19.8	12.7	0.7	0.4	11.0
북부권	100.0	38.4	29.6	25.8	0.5	1.0	4.7
서남부권	100.0	47.5	37.9	11.7	0.7	0.0	2.2
< 성별 >							
남자	100.0	43.7	33.1	15.6	0.7	0.5	6.6
여자	100.0	51.3	29.6	15.2	0.7	0.2	3.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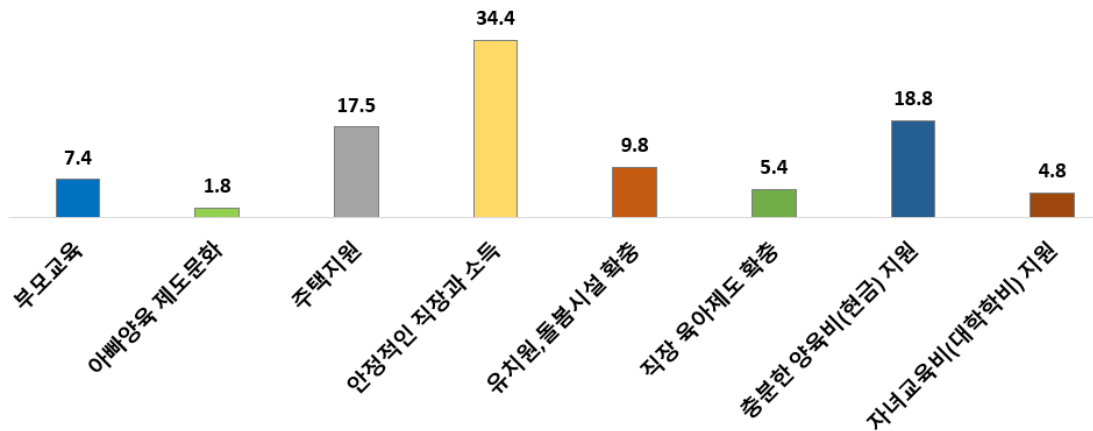
3-3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응답이 34.4%로 가장 많고, 「주택지원」(18.8%), 「충분한 양육비(현금)지원」(17.5%)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37.4%), 북부권(32.9%), 중부권(26.6%) 순으로 나타남.
- 남자(34.9%)와 여자(33.9%) 모두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응답이 가장 많고, 60세(37.2%)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학력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등 모든 분류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응답이 가장 많음.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



[표 3-3]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

(단위: %)

구분	계	부모교육	아빠양육 제도문화	주택지원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유치원, 돌봄시설 확충	직장 육아제도 확충	충분한 양육비(현금) 지원	자녀 교육비(대학학비) 지원
2022년 <지역별>	100.0	7.4	1.8	17.5	34.4	9.8	5.4	18.8	4.8
중부권	100.0	9.5	2.2	17.7	26.6	17.7	6.5	18.1	1.8
북부권	100.0	4.1	2.2	23.8	32.9	3.4	6.7	15.6	11.4
서남부권	100.0	7.6	1.5	15.3	37.4	9.3	4.7	20.6	3.6
<성별>									
남자	100.0	7.3	1.9	17.1	34.9	9.7	5.7	18.3	5.1
여자	100.0	7.4	1.7	18.1	33.9	9.9	5.1	19.5	4.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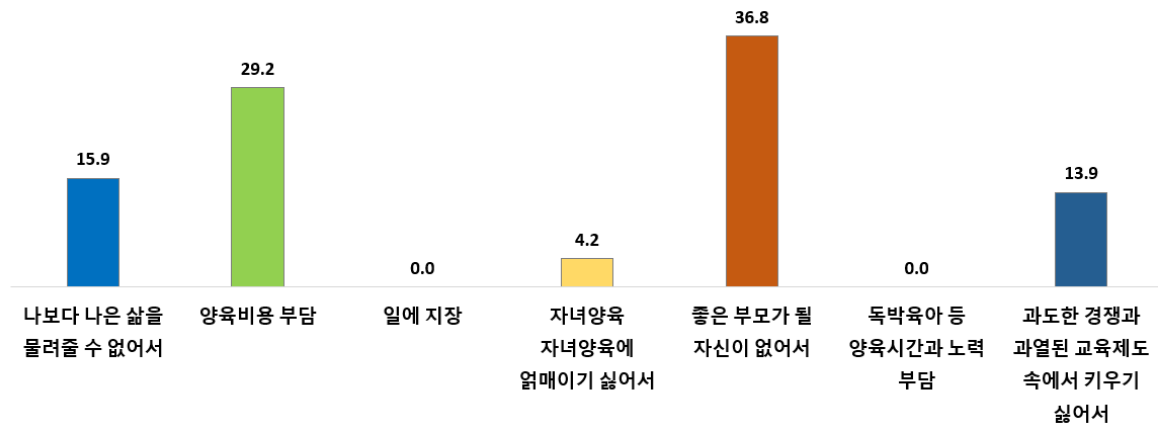
3-4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응답이 36.8%로 가장 많고, 「양육비용 부담」(29.2%),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15.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50.0%)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77.4%), 서남부권은 「양육비용 부담」(63.1%)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42.7%) 응답이 가장 많고, 여자는 「양육비용 부담」(42.5%)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표 3-4]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계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	양육비용 부담	일에 지장	자녀양육 자녀양육에 엄매이기 싫어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독박육아 등 양육시간과 노력 부담	과도한 경쟁과 과열된 교육제도 속에서 키우기 싫어서
2022년	100.0	15.9	29.2	0.0	4.2	36.8	0.0	13.9
<지역별>								
중부권	100.0	50.0	0.0	0.0	0.0	15.0	0.0	35.0
북부권	100.0	0.0	12.4	0.0	0.0	77.4	0.0	10.2
서남부권	100.0	0.0	63.1	0.0	10.2	26.7	0.0	0.0
<성별>								
남자	100.0	12.2	22.6	0.0	6.2	42.7	0.0	16.3
여자	100.0	23.4	42.5	0.0	0.0	24.6	0.0	9.6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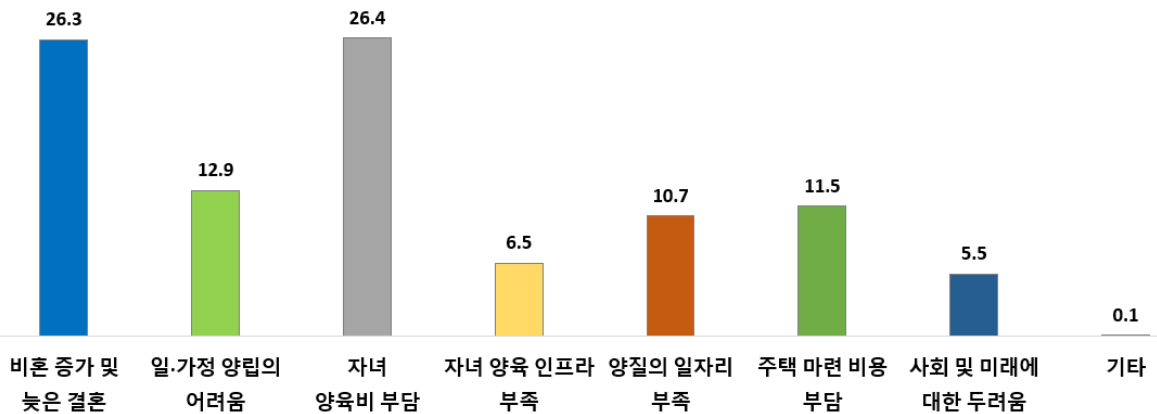
3-5 저출산의 주요 원인

「자녀 양육비 부담」

•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출산·육아·교육 등)」(26.4%) 응답이 가장 많고,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25.2%),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2.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26.3%)과 북부권(28.8%)은 「자녀 양육비 부담」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30.9%)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는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27.5%), 여자는 「자녀 양육비 부담」(27.1%)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50대와 70세 이상은 「자녀 양육비 부담」 응답이 가장 많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응답이 가장 많음.
- 혼인상태별로 미혼은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응답이 가장 많고, 배우자 있음과 사별/이혼은 「자녀 양육비 부담」 응답이 가장 많음.

저출산의 주요 원인



[표 3-5] 저출산의 주요 원인

(단위: %)

구분	계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양육 인프라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택 마련 비용 부담	사회 및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타
2022년	100.0	26.3	12.9	26.4	6.5	10.7	11.5	5.5	0.1
< 지역별 >									
중부권	100.0	18.5	12.8	26.3	13.0	11.2	13.9	4.4	0.0
북부권	100.0	24.3	11.9	28.8	3.1	11.4	14.7	5.6	0.2
서남부권	100.0	30.9	13.5	25.4	5.0	10.2	9.1	6.0	0.0
< 성별 >									
남자	100.0	27.5	12.3	25.9	6.7	9.6	12.1	6.0	0.0
여자	100.0	24.9	13.7	27.1	6.3	11.9	10.9	5.0	0.1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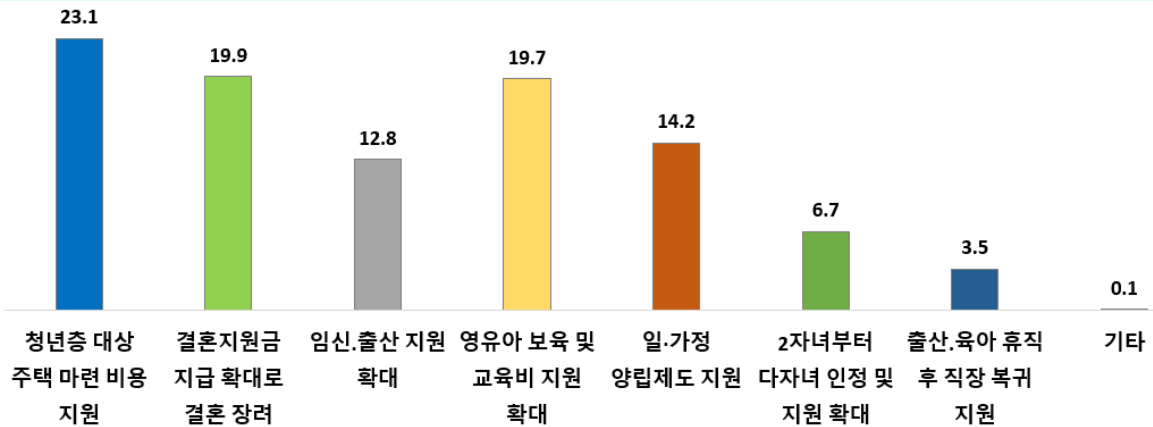
3-6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시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23.1%) 응답이 가장 많고, 「결혼지원금 지급 확대로 결혼 장려」(19.9%),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19.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24.5%)과 서남부권(22.8%)은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결혼지원금 지급 확대로 결혼 장려」(24.3%) 응답이 가장 많음.
- 남자(23.0%)와 여자(23.2%) 모두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 40대, 50대는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응답이 가장 많고, 30대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60대와 70세 이상은 「결혼지원금 지급 확대로 결혼 장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표 3-6]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단위: %)

구분	계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결혼지원금 지급 확대로 결혼 장려	임신·출산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	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및 지원 확대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 지원	기타
2022년	100.0	23.1	19.9	12.8	19.7	14.2	6.7	3.5	0.1
< 지역별 >									
중부권	100.0	24.5	22.8	10.0	16.7	12.2	8.8	5.0	0.0
북부권	100.0	22.3	24.3	14.5	19.4	9.3	6.2	3.8	0.3
서남부권	100.0	22.8	16.5	13.4	21.3	17.4	5.9	2.7	0.0
< 성별 >									
남자	100.0	23.0	20.0	13.2	18.9	14.1	7.3	3.6	0.0
여자	100.0	23.2	19.8	12.5	20.6	14.4	6.1	3.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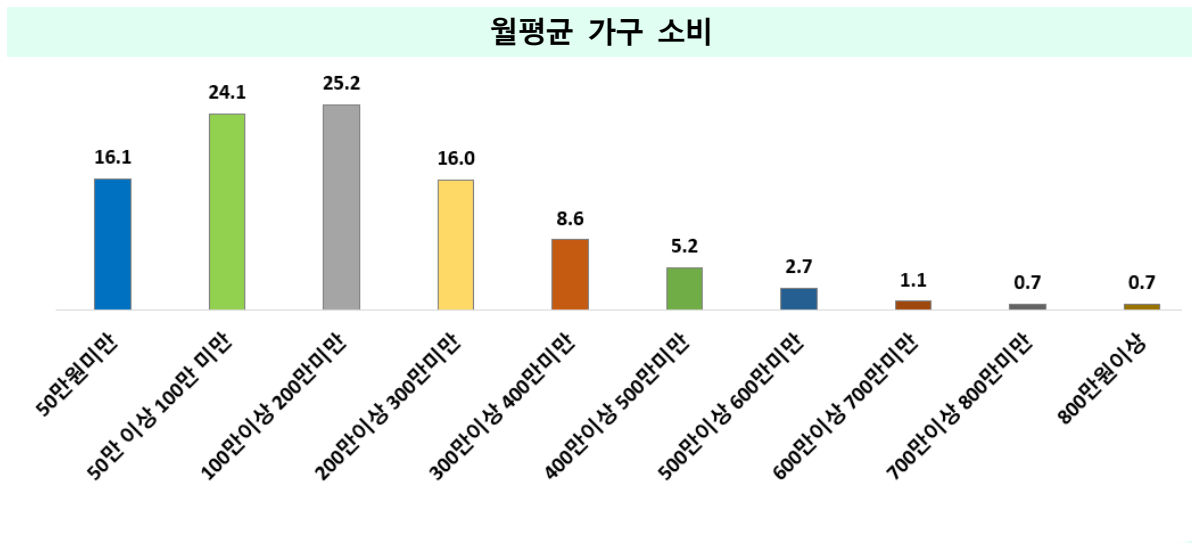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7 월평균 가구 소비

월 평균 가구 소비 「100만원~200만원」이 가장 많아

- 월 평균 가구 소비는 「100만원~200만원」이 25.2%로 가장 많고, 「50만원~100만원」(24.1%), 「50만원 미만」(16.1%) 순으로 나타남.

- 평균 가구 소비는 187.6만원으로 전년(210.1만원) 대비 22.5만원 감소함.
- 지역별로 평균 소비는 중부권(218.0만원), 서남부권(184.5만원), 북부권(159.8만원) 순이며, 평균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 간 차이는 58.2만원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 평균 소비는 214.6만원이며, 여자는 111.7만원으로 102.9만원 차이임.
- 평균 소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303.5만원), 가장 낮은 연령대는 15~29세(109.5만원)이며, 두 연령대 간 차이는 194.0만원으로 나타남.



[표 3-7] 월평균 가구 소비

(단위: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00만 이상 300만 미만	300만 이상 400만 미만	400만 이상 500만 미만	500만 이상 600만 미만	600만 이상 700만 미만	700만 이상 800만 미만	8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2017년	100.0	28.3	31.3	23.0	11.8	4.2			1.5			152.3
2018년	100.0	25.7	23.2	26.2	16.3	4.7	1.6	0.8	0.8	0.1	0.4	145.5
2019년	100.0	19.1	24.9	30.2	13.6	8.0	2.5	0.6	0.3	0.1	0.7	157.2
2020년	100.0	9.5	24.4	27.2	18.0	10.4	3.1	1.3	3.0	1.8	1.4	210.1
2022년	100.0	16.1	24.1	25.2	16.0	8.6	5.2	2.7	1.1	0.7	0.7	187.6
< 지역별 >												
중부권	100.0	9.6	26.2	26.3	10.9	11.0	8.5	2.1	3.3	0.8	1.3	218.0
북부권	100.0	25.9	21.0	27.9	12.4	5.7	2.7	2.9	0.0	0.8	0.8	159.8
서남부권	100.0	15.1	24.3	23.5	19.9	8.6	4.6	2.8	0.4	0.6	0.3	184.5
< 성별 >												
남자	100.0	7.3	22.5	27.6	19.7	10.5	6.5	3.5	0.7	0.9	0.9	214.6
여자	100.0	40.6	28.4	18.5	5.5	3.3	1.4	0.3	2.1	0.0	0.0	111.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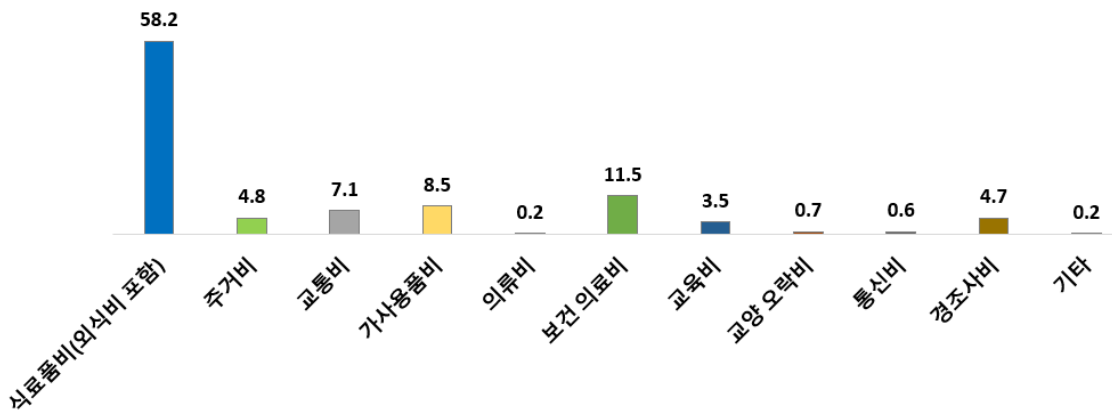
3-8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가구주, 1순위 응답)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는 「식료품비」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식료품비」가 58.2%로 가장 많고, 「보건의료비」(11.5%), 「가사용품비」(8.5%)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49.4%), 북부권(49.2%), 서남부권(66.4%) 모두 「식료품비」 응답이 가장 많음.
- 남자(57.9%)와 여자(59.1%) 모두 「식료품비」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 학력별, 혼인상태별 등 모든 분류에서 「식료품비」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표 3-8]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가구주, 1순위 응답)

(단위: %)

구분	계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통비	가사용품비	의류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교양 오락비	통신비	경조사비	기타
2017년	100.0	36.4	7.9	11.1	11.7	0.5	18.9	7.6		2.5	2.1	1.1
2018년	100.0	37.9	9.8	3.2	9.4	1.1	21.8	5.1	0.7	2.7	7.0	1.0
2019년	100.0	34.9	9.4	8.6	5.4	1.2	24.8	6.7	0.6	2.9	5.6	0.0
2020년	100.0	28.6	7.2	7.4	10.4	0.6	22.6	10.3	0.4	5.5	7.0	
2022년	100.0	58.2	4.8	7.1	8.5	0.2	11.5	3.5	0.7	0.6	4.7	0.2
< 지역별 >												
중부권	100.0	49.4	8.5	8.4	2.4	0.0	8.1	2.7	2.7	2.1	15.7	0.0
북부권	100.0	49.2	5.5	10.2	2.9	0.9	20.6	8.5	0.0	0.3	1.8	0.3
서남부권	100.0	66.4	2.7	5.1	13.8	0.0	9.3	1.9	0.0	0.0	0.6	0.2
< 성별 >												
남자	100.0	57.9	4.6	8.7	8.8	0.3	8.4	4.3	0.9	0.5	5.4	0.1
여자	100.0	59.1	5.3	2.5	7.5	0.0	20.0	1.4	0.0	0.7	2.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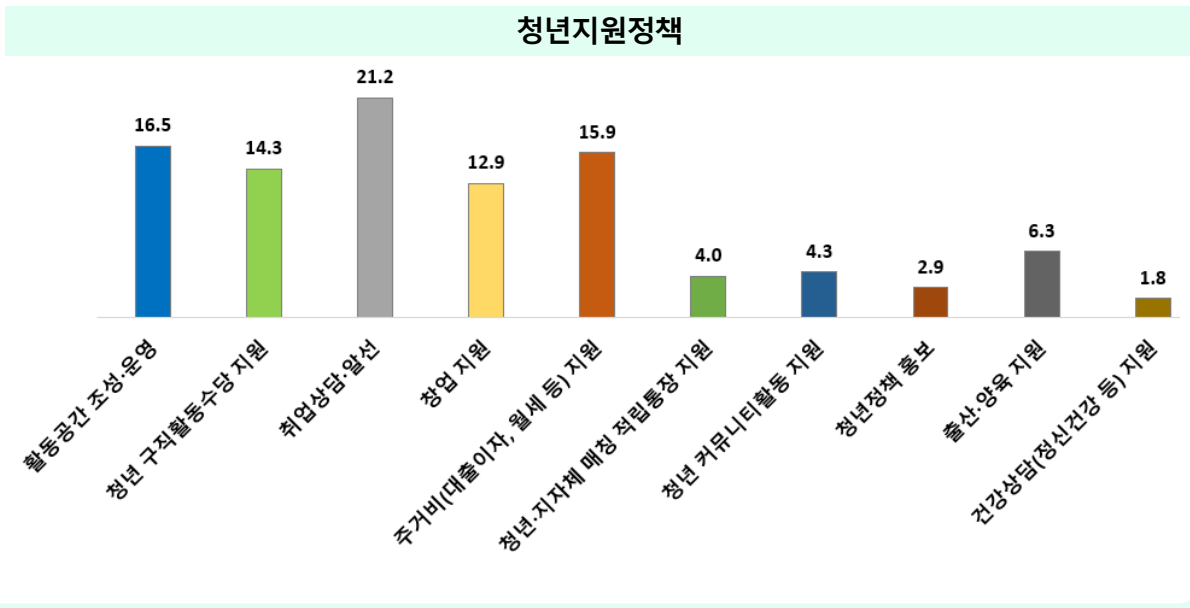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9 청년지원정책

청년지원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

•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 응답이 21.2%로 가장 많고, 「활동공간 조성·운영」(16.5%),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15.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21.5%)과 서남부권(22.8%)은 「취업 상담·알선」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24.6%)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19.5%)와 여자(23.1%) 모두 「취업 상담·알선」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30대는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취업 상담·알선」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 청년지원정책

(단위: %)

구분	계	활동공간 조성·운영(청년센터 등)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취업 상담·알선	창업 지원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	청년·지자체 매칭 적립통장 지원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	청년정책 홍보	출산·양육 지원	건강상담(정신건강 등) 지원	기타
2020년 1순위	100.0	20.6	20.3	26.3	9.6	10.6	1.5	3.5	1.9	4.2	1.5	
2020년 2순위	100.0	6.4	8.8	20.7	13.3	10.3	9.0	8.0	7.2	10.3	6.1	
2022년	100.0	16.5	14.3	21.2	12.9	15.9	4.0	4.3	2.9	6.3	1.8	0.0
< 지역 별 >												
중부권	100.0	13.0	10.1	21.5	10.2	21.6	7.3	6.2	3.7	5.0	1.4	0.1
북부권	100.0	17.4	7.6	17.6	11.3	24.6	3.9	4.6	1.5	11.3	0.2	0.0
서남부권	100.0	17.7	19.4	22.8	15.0	9.0	2.4	3.2	3.1	4.8	2.7	0.0
< 성 별 >												
남자	100.0	17.9	14.6	19.5	13.0	15.9	4.4	4.7	2.5	5.9	1.5	0.0
여자	100.0	14.8	13.9	23.1	12.7	15.8	3.5	3.9	3.3	6.8	2.1	0.1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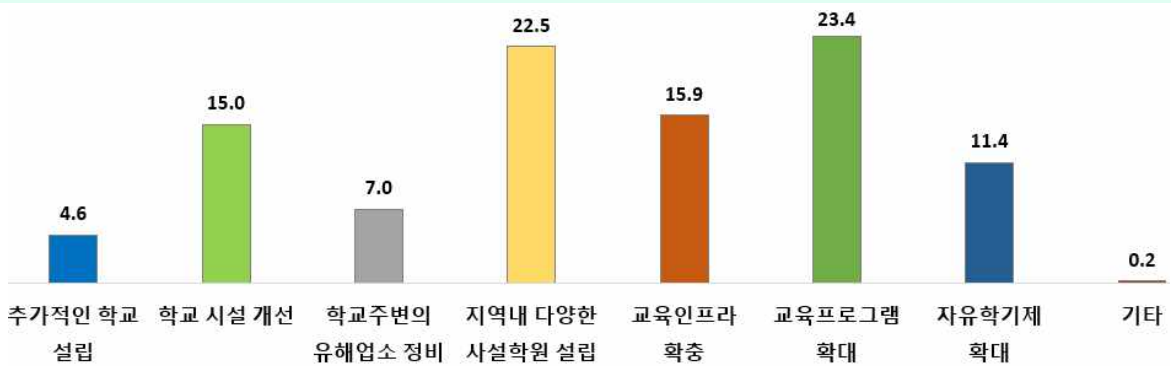
3-10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교육프로그램 확대」

• 거주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개선해야 할 분야로 「교육프로그램 확대」 응답이 23.4%로 가장 높고, 「지역 내 다양한 사설학원 설립」(22.5%), 「교육인프라 확충(도서관 건립 등)」(15.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34.6%)과 북부권(33.2%)은 「지역 내 다양한 사설학원 설립」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교육프로그램 확대」(31.0%)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지역 내 다양한 사설학원 설립」(22.7%), 여자는 「교육프로그램 확대」(24.6%)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는 「교육인프라 확충(도서관 건립 등)」, 30대와 40대, 60대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50대와 70세 이상은 「지역 내 다양한 사설학원 설립」 응답이 가장 많음.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표 3-10]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단위: %)

구 분	계	추가적인 학교설립	학교 시설 개선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	지역내 다양한 사설학원의 설립	교육인프라 확충	교육프로그램 확대	자유학기제(체험학습 등) 확대	기타
2018년	100.0	2.0	37.2	5.7	11.4	17.3	21.5	4.6	0.1
2020년	100.0	4.2	24.4	5.2	21.4	13.8	24.8	6.2	
2022년	100.0	4.6	15.0	7.0	22.5	15.9	23.4	11.4	0.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0	7.6	9.9	34.6	21.4	14.4	10.8	0.2
북 부 권	100.0	2.9	14.5	10.0	33.2	16.7	16.2	6.6	0.0
서 남 부 권	100.0	7.0	18.8	4.2	11.7	13.0	31.0	14.0	0.2
< 성 별 >									
남 자	100.0	4.5	16.3	6.4	22.7	14.6	22.3	12.9	0.3
여 자	100.0	4.6	13.5	7.6	22.3	17.6	24.6	9.7	0.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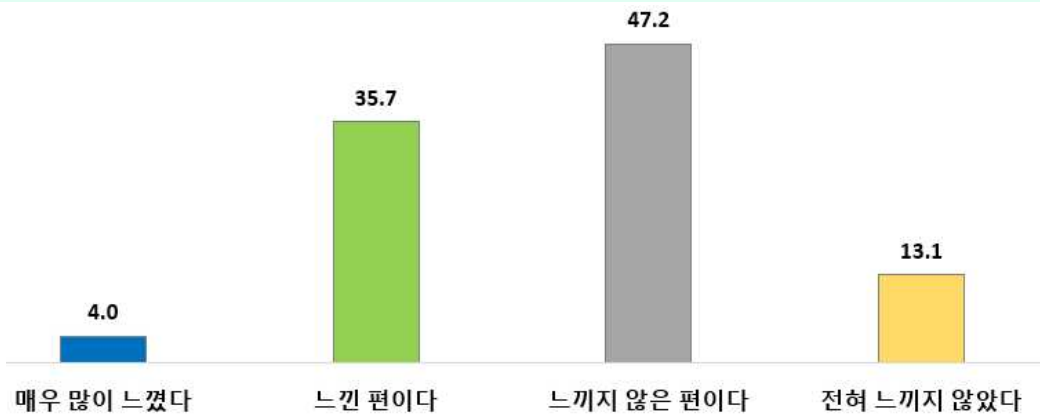
3-11 스트레스 정도 - 1) 가정생활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은 편」

• 지난 2주일 동안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은 편이다」 응답이 47.2%로 가장 많고, 「느낀 편이다」(35.7%), 「전혀 느끼지 않았다」(13.1%), 「매우 많이 느꼈다」(4.0%)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를 「느낀다」(39.7%) 응답보다 「느끼지 않는다」(60.3%) 응답이 더 많음.
- 지역별로 「느낀다」 응답은 중부권(48.7%), 서남부권(41.4%), 북부권(27.1%)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33.9%)보다 여자(46.4%)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30대(59.5%)에서 가장 많고, 「느끼지 않는다」 응답은 15~29세(67.8%)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스트레스 정도 - 1) 가정생활



[표 3-11] 스트레스 정도 - 1) 가정생활

(단위: %)

구분	계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은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2018년	100.0	4.5	51.0	35.5	9.0
2020년	100.0	2.5	34.0	46.4	17.1
2022년	100.0	4.0	35.7	47.2	13.1
< 지역별 >					
중부권	100.0	9.0	39.7	32.9	18.4
북부권	100.0	3.7	23.3	52.1	20.8
서남부권	100.0	1.7	39.7	51.7	6.9
< 성별 >					
남자	100.0	3.0	30.9	50.1	16.0
여자	100.0	5.1	41.3	43.9	9.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12 스트레스 정도 - 2) 직장생활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

• 지난 2주일 동안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응답이 51.0%로 가장 많고, 「느끼지 않은 편이다」(30.6%), 「매우 많이 느꼈다」(13.3%), 「전혀 느끼지 않았다」(5.2%)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35.8%) 응답보다 「느낀다」(64.2%) 응답이 더 많음.
- 지역별로 중부권(82.1%)과 서남부권(62.5%)은 「느낀다」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느끼지 않는다」(52.1%) 응답이 가장 많음.
- 성별로는 여자(63.5%)보다 남자(64.7%)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15~29세(76.5%)에서 가장 많고, 「느끼지 않는다」 응답은 60대(60.8%)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사무직 종사자(84.2%)가 가장 많고,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기능/노무 종사자(40.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스트레스 정도 - 2) 직장생활



[표 3-12] 스트레스 정도 - 2) 직장생활

(단위: %)

구 분	계	해당있음						해당없음
		소계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은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2018년	100.0	17.8	100.0	11.1	66.5	20.1	2.3	82.2
2020년	100.0	77.1	100.0	3.5	41.2	42.0	13.3	22.9
2022년	100.0	75.3	100.0	13.3	51.0	30.6	5.2	24.7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79.6	100.0	35.9	46.2	10.1	7.7	20.4
북 부 권	100.0	70.9	100.0	6.6	41.3	44.9	7.2	29.1
서 남 부 권	100.0	75.4	100.0	4.9	57.6	34.5	3.0	24.6
< 성 별 >								
남 자	100.0	84.6	100.0	15.8	48.9	30.8	4.5	15.4
여 자	100.0	64.5	100.0	9.4	54.1	30.3	6.2	35.5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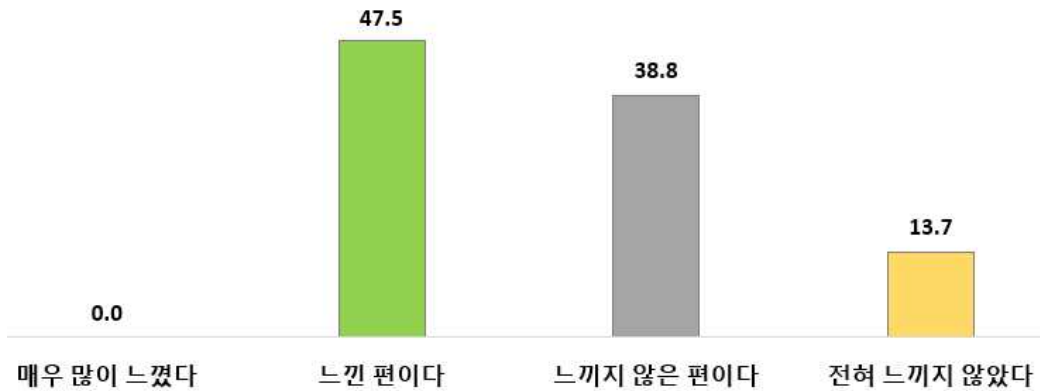
3-13 스트레스 정도 - 3) 학교생활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 지난 2주일 동안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응답이 47.5%로 가장 많고, 「느끼지 않은 편이다」(38.8%), 「전혀 느끼지 않았다」(13.7%)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를 「느낀다」(47.5%) 응답보다 「느끼지 않는다」(52.5%) 응답이 더 많음.
- 지역별로 중부권(66.7%)과 북부권(53.3%)은 「느끼지 않는다」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느낀다」(62.7%)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28.4%)보다 여자(85.1%)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스트레스 정도 - 3) 학교생활



[표 3-13] 스트레스 정도 - 3) 학교생활

(단위: %)

구 분	계	해당있음						해당없음
		소계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은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2018년	100.0	4.3	100.0	0.0	70.3	29.7	0.0	95.7
2020년	100.0	3.4	100.0	0.0	51.2	28.1	20.7	96.6
2022년	100.0	2.3	100.0	0.0	47.5	38.8	13.7	97.7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7	100.0	0.0	33.3	33.3	33.3	97.3
북 부 권	100.0	4.1	100.0	0.0	46.7	53.3	0.0	95.9
서 남 부 권	100.0	1.3	100.0	0.0	62.7	22.4	14.9	98.7
< 성 별 >								
남 자	100.0	2.8	100.0	0.0	28.4	51.0	20.6	97.2
여 자	100.0	1.7	100.0	0.0	85.1	14.9	0.0	98.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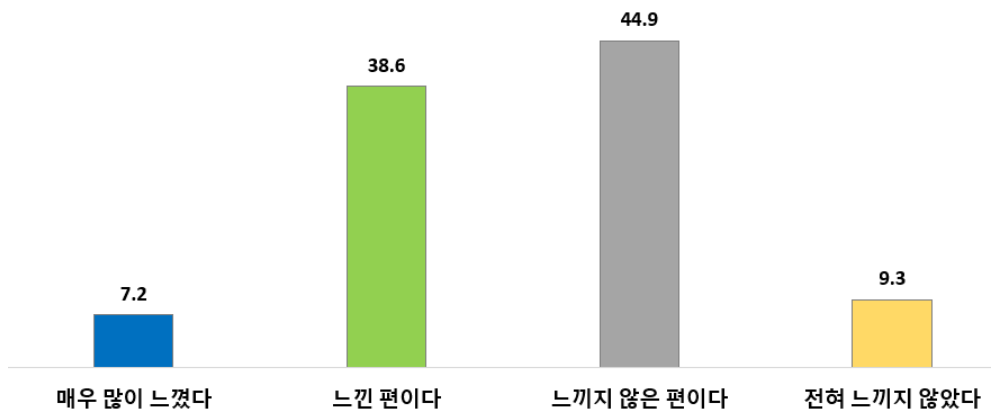
3-14 스트레스 정도 - 4) 전반적인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은 편」

•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은 편이다」 응답이 44.9%로 가장 많고, 「느낀 편이다」(38.6%), 「전혀 느끼지 않았다」(9.3%), 「매우 많이 느꼈다」(7.2%)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를 「느낀다」(45.9%) 응답보다 「느끼지 않는다」(54.1%) 응답이 더 많음.
- 지역별로 북부권(66.4%)과 서남부권(55.0%)은 「느끼지 않는다」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59.9%)은 「느낀다」 응답이 가장 많음.
- 성별로는 남자(43.4%)보다 여자(48.7%)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30대(64.4%)에서 가장 많고, 「느끼지 않는다」 응답은 70세 이상(61.1%)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스트레스 정도 - 4) 전반적인 일상생활



[표 3-14] 스트레스 정도 - 4) 전반적인 일상생활

(단위: %)

구분	계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은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2018년	100.0	4.9	54.8	32.5	7.9
2020년	100.0	2.3	35.5	47.8	14.3
2022년	100.0	7.2	38.6	44.9	9.3
< 지역별 >					
중부권	100.0	23.9	36.0	27.6	12.5
북부권	100.0	3.1	30.6	50.9	15.5
서남부권	100.0	1.3	43.7	50.2	4.8
< 성별 >					
남자	100.0	7.2	36.2	46.2	10.3
여자	100.0	7.2	41.5	43.3	8.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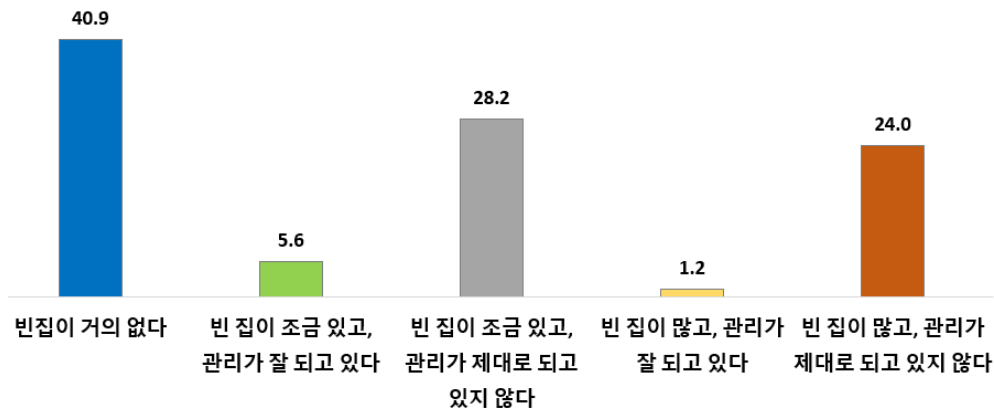
3-15 집 주변에 빈 집의 수와 방치 정도

「빈집이 거의 없다」 40.9%

• 집 주변에 빈집의 수와 방치 정도는 「빈집이 거의 없다」(40.9%) 응답이 가장 많고, 「빈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28.2%), 「빈집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24.0%)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49.0%)과 북부권(68.6%)은 「빈집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빈집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43.3%)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42.4%)와 여자(39.2%) 모두 「빈집이 거의 없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빈집이 거의 없다」 응답이 가장 많고, 40대(45.3%)가 가장 많음.

집 주변에 빈 집의 수와 방치 정도



[표 3-15] 집 주변에 빈 집의 수와 방치 정도

(단위: %)

구 분	계	빈집이 거의 없다	빈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빈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빈집이 많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빈집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2022년 <지역별>	100.0	40.9	5.6	28.2	1.2	24.0
중부권	100.0	49.0	8.6	37.9	0.3	4.1
북부권	100.0	68.6	3.2	23.9	0.9	3.4
서남부권	100.0	24.0	5.3	25.7	1.7	43.3
<성별>						
남자	100.0	42.4	6.1	30.3	1.2	20.1
여자	100.0	39.2	5.1	25.8	1.2	28.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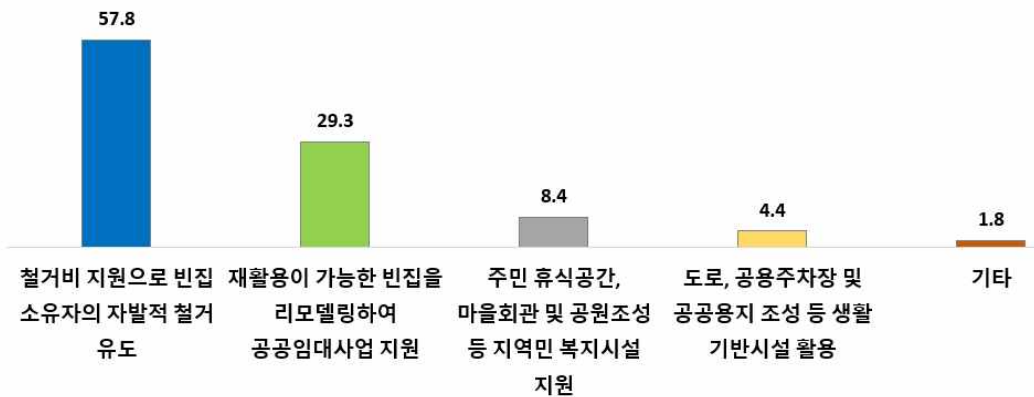
3-16 빈 집의 활용방안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 집 주변의 빈집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57.8%) 응답이 가장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새단장(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29.3%), 「주민 휴식공간(쉼터), 마을회관 및 공원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8.4%), 「도로, 공용주차장 및 공공용지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활용」(4.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66.7%), 서남부권(58.7%), 북부권(39.1%) 순으로 나타남.
- 남자(58.5%)와 여자(57.1%) 모두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는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새단장(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지역은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응답이 가장 많음.

빈 집의 활용방안



[표 3-16] 빈 집의 활용방안

(단위: %)

구분	계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	주민 휴식공간, 마을회관 및 공원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	도로, 공용주차장 및 공공용지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활용	기타
2022년	100.0	57.8	29.3	8.4	4.4	
< 지역별 >						
중부권	100.0	66.7	24.6	4.8	3.9	
북부권	100.0	39.1	26.5	20.0	14.5	
서남부권	100.0	58.7	31.3	7.3	2.6	
< 성별 >						
남자	100.0	58.5	28.2	8.4	4.9	
여자	100.0	57.1	30.6	8.4	3.9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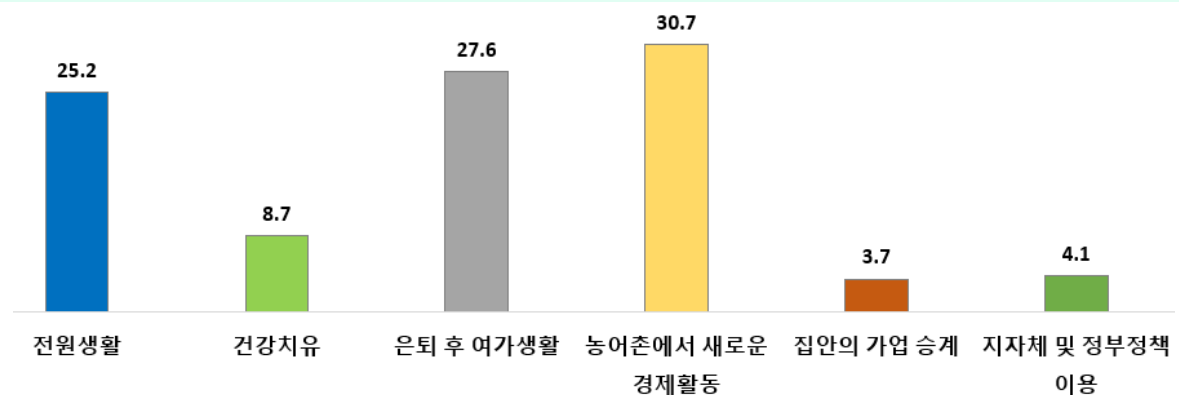
3-17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 귀농어·귀촌을 하는 이유로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30.7%) 응답이 가장 많고, 「은퇴 후 여가생활」(27.6%), 「전원생활」(25.2%)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38.2%)과 북부권(33.5%)은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은퇴 후 여가생활」(35.5%)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31.2%)와 여자(30.3%) 모두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와 30대는 「은퇴 후 여가생활」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표 3-17]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구분	계	전원생활	건강치유	은퇴 후 여가생활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집안의 가업 승계	지자체 및 정부정책 이용	기타
2022년 <지역별>	100.0	25.2	8.7	27.6	30.7	3.7	4.1	
중부권	100.0	31.5	7.8	18.5	38.2	0.6	3.3	
북부권	100.0	23.6	14.5	19.9	33.5	4.0	4.5	
서남부권	100.0	22.9	6.4	35.5	25.9	5.0	4.3	
<성별>								
남자	100.0	23.6	8.1	29.2	31.2	3.5	4.5	
여자	100.0	27.0	9.5	25.7	30.3	4.0	3.6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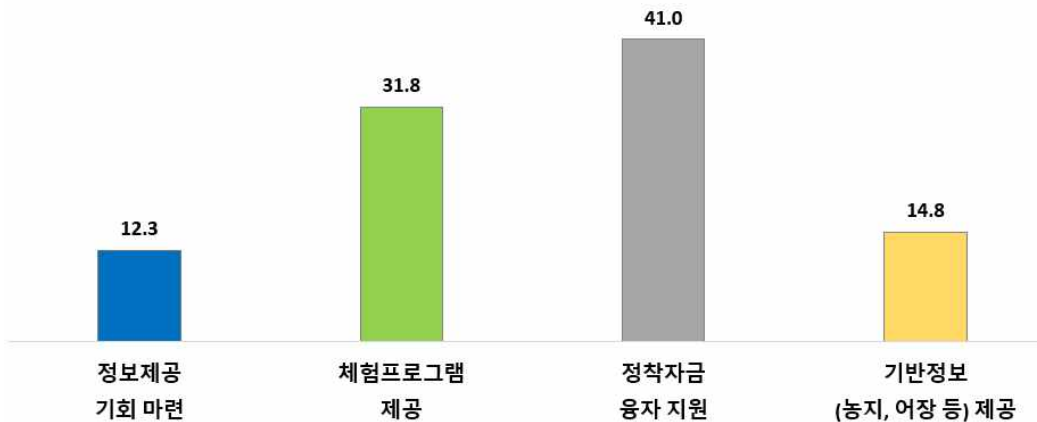
3-18 귀농어, 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정착자금 용자지원」

• 귀농어·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정착자금 용자지원」(41.0%) 응답이 가장 많고, 「체험프로그램 제공」(31.8%), 「기본정보(농지, 어장 등) 제공」(14.8%), 「정보제공 기회(박람회 등) 마련」(12.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체험프로그램 제공」(41.6%)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57.9%)과 서남부권(41.1%)은 「정착자금 용자지원」 응답이 가장 많음.
- 남자(42.6%)와 여자(39.1%) 모두 「정착자금 용자지원」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정착자금 용자지원」 응답이 가장 많고, 「정착자금 용자지원」 응답은 15~29세(43.7%)에서 가장 많이 응답함.

귀농어, 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표 3-18] 귀농어, 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단위: %)

구분	계	정보제공 기회마련	체험프로그램 제공	정착자금 용자지원	기본정보 (농지, 어장 등) 제공	기타
2022년	100.0	12.3	31.8	41.0	14.8	0.0
< 지역별 >						
중부권	100.0	15.2	41.6	23.9	19.2	0.0
북부권	100.0	9.9	13.9	57.9	18.1	0.2
서남부권	100.0	12.1	35.7	41.1	11.2	0.0
< 성별 >						
남자	100.0	11.3	31.6	42.6	14.4	0.0
여자	100.0	13.5	32.0	39.1	15.3	0.1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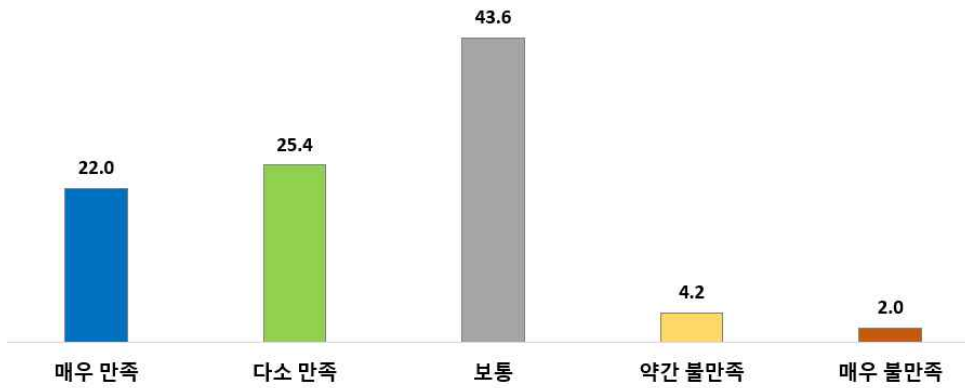
3-19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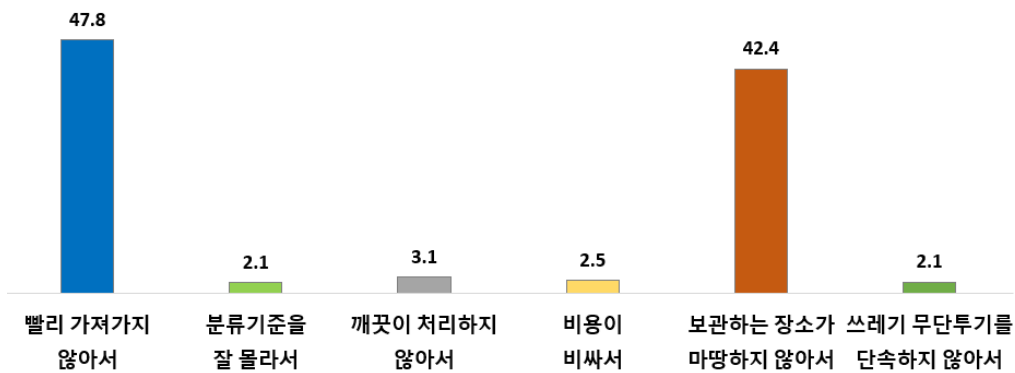
- 전라남도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보통」(43.6%) 응답이 가장 많고,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47.8%) 응답이 가장 많음.

- 「불만족」(6.2%) 응답보다 「만족」(47.4%)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생활폐기물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생활폐기물



[표 3-19]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생활폐기물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만족도	해당없음
2020년	100.0	17.7	30.3	42.2	7.4	1.3	3.6	1.0
2022년	100.0	22.0	25.4	43.6	4.2	2.0	3.6	2.8

[표 3-20]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생활폐기물

(단위: %)

구 분	계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싸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기타
2020년	100.0	27.4	10.1	13.6	8.4	18.3	22.2	
2022년	100.0	47.8	2.1	3.1	2.5	42.4	2.1	0.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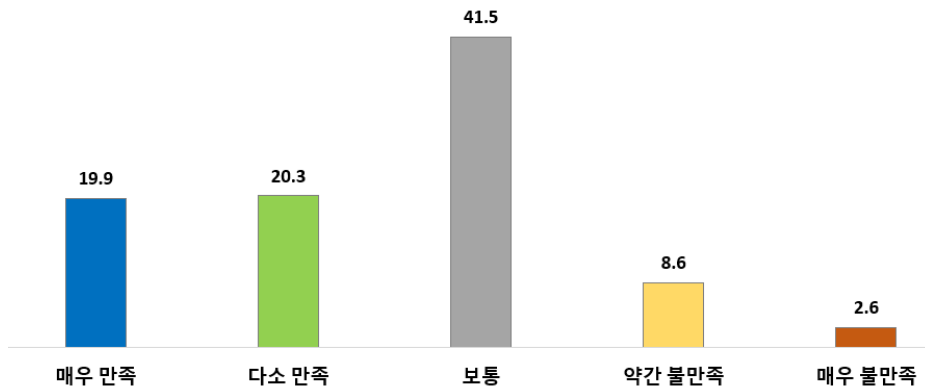
3-20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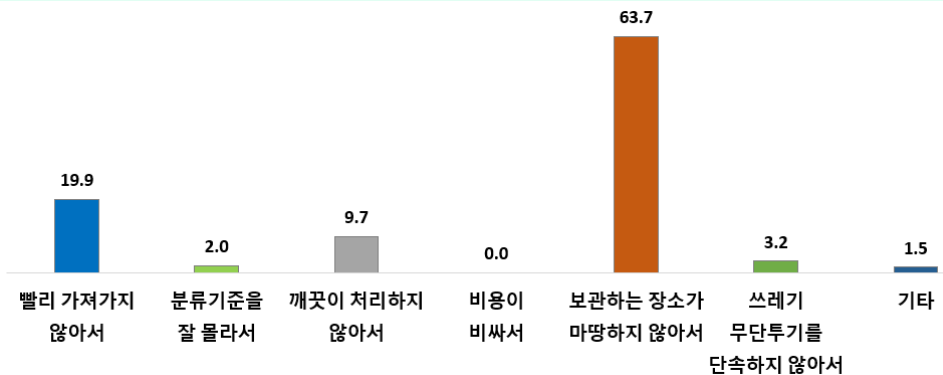
- 전라남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보통」(41.5%) 응답이 가장 많고, 불만족 이유는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63.7%) 응답이 가장 많음.

- 「불만족」(11.3%) 응답보다 「만족」(40.2%)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음식물쓰레기



[표 3-21]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음식물쓰레기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만족도	해당없음
2020년	100.0	18.1	29.8	42.7	6.7	1.5	3.6	1.2
2022년	100.0	19.9	20.3	41.5	8.6	2.6	3.5	7.1

[표 3-22]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음식물쓰레기

(단위: %)

구 분	계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싸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기타
2020년	100.0	55.8	6.4	15.4	0.0	13.1	9.3	
2022년	100.0	19.9	2.0	9.7	0.0	63.7	3.2	1.5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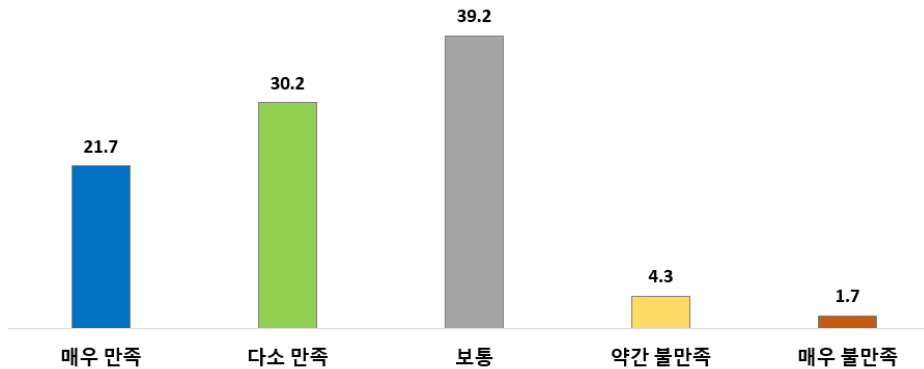
3-21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재활용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처리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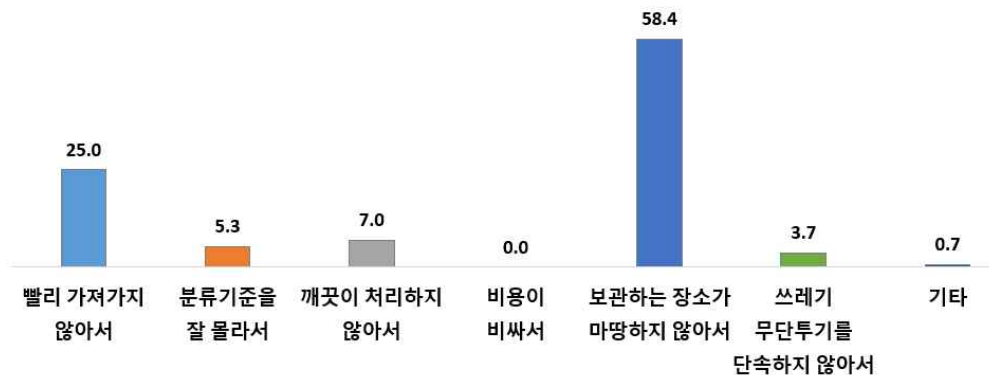
- 전라남도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 「보통」(39.2%) 응답이 가장 많고, 불만족 이유는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58.4%) 응답이 가장 많음.

- 「불만족」(6.1%) 응답보다 「만족」(52.0%)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재활용쓰레기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재활용쓰레기



[표 3-23]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재활용쓰레기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만족도	해당없음
2020년	100.0	17.9	34.4	39.1	6.1	1.4	3.6	1.2
2022년	100.0	21.7	30.2	39.2	4.3	1.7	3.7	2.8

[표 3-24]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재활용쓰레기

(단위: %)

구 분	계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싸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기타
2020년	100.0	29.2	14.7	11.2	1.6	27.1	16.1	
2022년	100.0	25.0	5.3	7.0	0.0	58.4	3.7	0.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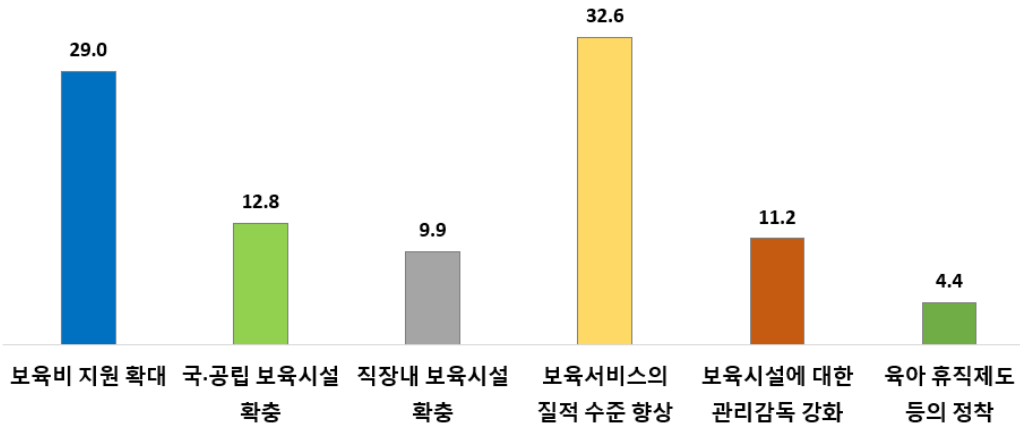
3-22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아동의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응답이 32.6%로 가장 많고, 「보육비 지원 확대」(29.0%),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2.8%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33.9%)과 서남부권(40.1%)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보육비 지원 확대」(53.6%) 응답이 가장 많음.
- 남자(32.0%)와 여자(33.3%) 모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70세 이상은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표 3-25]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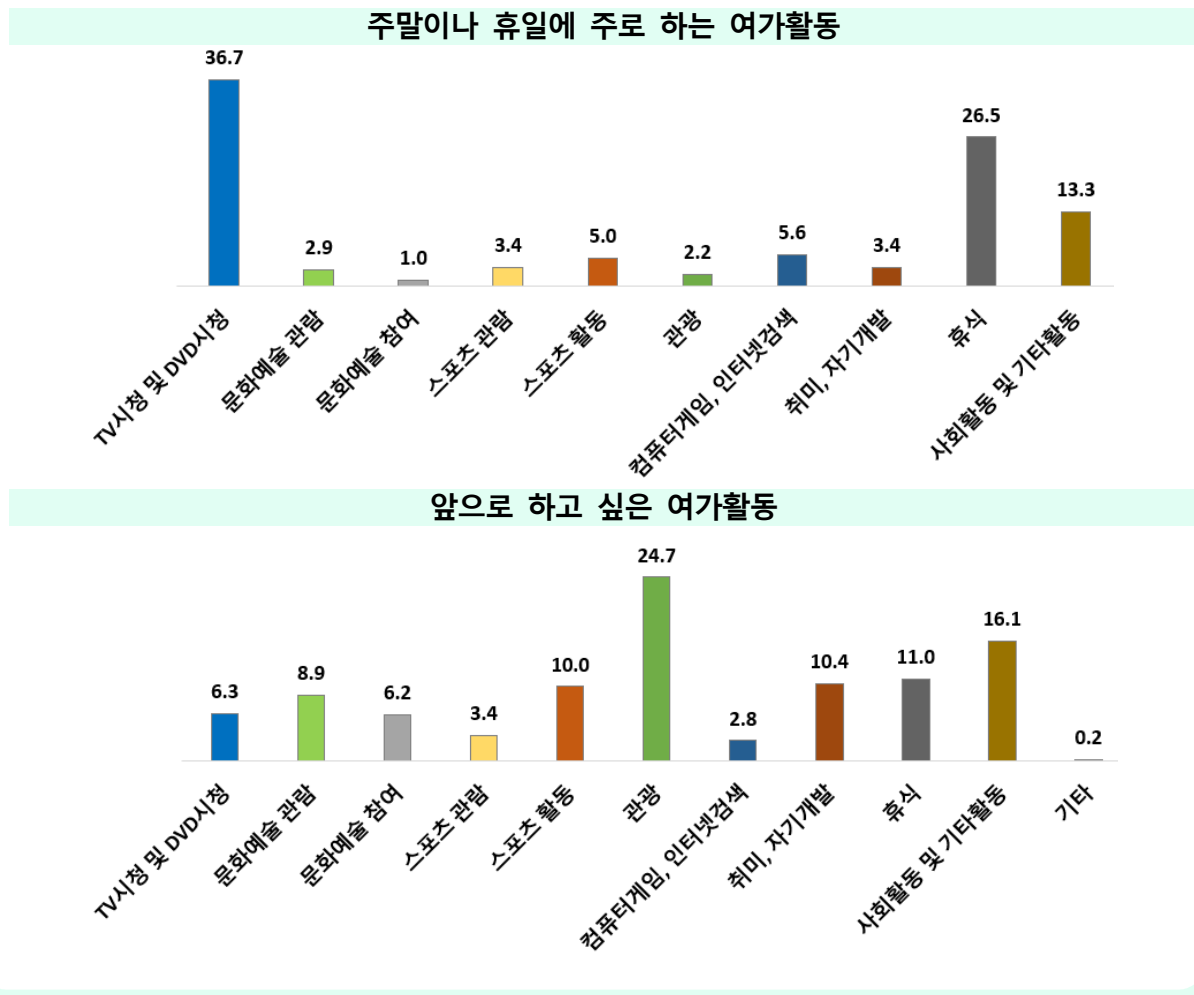
구분	계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착	기타
2018년	100.0	40.8	12.9	8.4	20.6	13.0	4.3	
2020년	100.0	29.8	15.5	7.7	30.0	9.9	7.0	0.1
2022년	100.0	29.0	12.8	9.9	32.6	11.2	4.4	
< 지역별 >								
중부권	100.0	12.6	15.0	14.6	33.9	18.6	5.3	
북부권	100.0	53.6	8.0	7.3	15.6	8.3	7.1	
서남부권	100.0	25.0	14.1	8.9	40.1	9.2	2.8	
< 성별 >								
남자	100.0	29.6	12.4	9.2	32.0	10.8	6.0	
여자	100.0	28.3	13.4	10.7	33.3	11.8	2.6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23 여가활동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

주로 「TV시청」을 하며, 하고 싶은 여가는 「관광」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36.7%)이 가장 많고, 앞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관광」(24.7%)을 응답함.



[표 3-26] 여가활동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복수응답)

(단위: %)

구분	TV시청 및 DVD시청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	취미 자기개발	휴식	사회활동 및 기타활동	기타
2020년	36.5	1.7	0.2	3.0	4.8	1.5	6.3	2.8	31.0	12.0	0.1
2022년	36.7	2.9	1.0	3.4	5.0	2.2	5.6	3.4	26.5	13.3	0.0

[표 3-27] 여가활동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

(단위: %)

구분	TV시청 및 DVD시청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	취미 자기개발	휴식	사회활동 및 기타활동	기타
2020년	3.0	12.8	3.5	4.3	15.3	27.9	3.9	12.1	8.5	8.7	
2022년	6.3	8.9	6.2	3.4	10.0	24.7	2.8	10.4	11.0	16.1	0.2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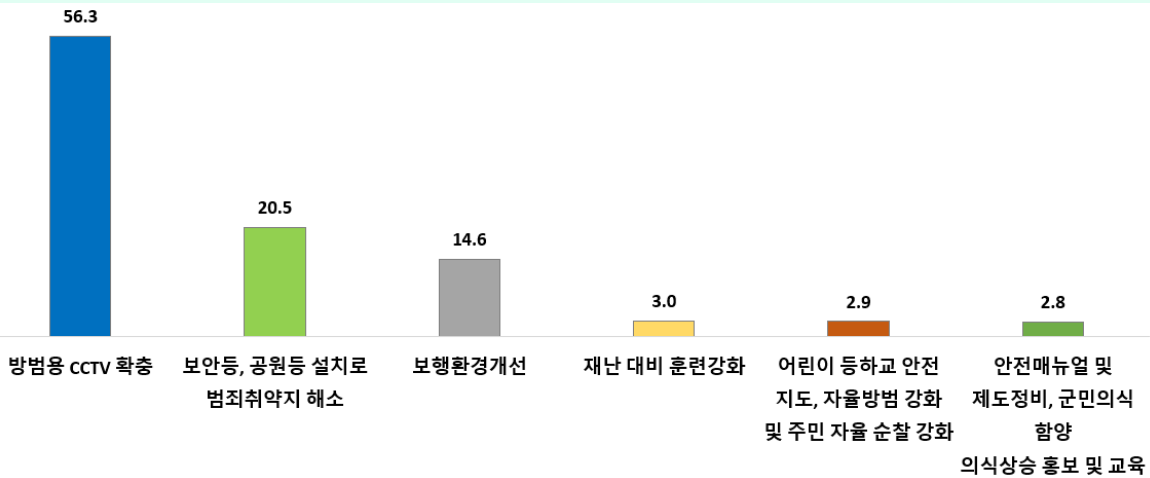
3-24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방안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법용 CCTV 확충」해야

•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방법용 CCTV 확충」이 56.3%로 가장 많고,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20.5%), 「보행환경개선(보도블럭, 방지턱, 안전웬스 설치 등)」(14.6%) 순임.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방법용 CCTV 확충」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60.3%), 북부권(54.9%), 중부권(48.8%) 순으로 나타남.
- 여자(54.1%)와 남자(58.2%) 모두 「방법용 CCTV 확충」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등 모든 분류에서 「방법용 CCTV 확충」 응답이 가장 많음.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방안



[표 3-27]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구분	계	방법용 CCTV 확충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지역 해소	보행환경개선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강화	어린이 등학교 안전 지도 및 주민 자율 순찰 강화	매뉴얼 및 제도정비, 군민의식 함양 및 교육	기타
2018년	100.0	42.3	18.6	15.0	6.9	5.3	12.0	0.0
2020년	100.0	40.9	17.7	17.3	6.4	5.7	11.9	0.0
2022년	100.0	56.3	20.5	14.6	3.0	2.9	2.8	
< 지역별 >								
중부권	100.0	48.8	31.5	15.1	0.3	2.2	2.2	
북부권	100.0	54.9	17.2	10.8	4.5	8.5	4.2	
서남부권	100.0	60.6	16.8	16.1	3.5	0.6	2.4	
< 성별 >								
남자	100.0	58.2	19.4	13.3	3.3	3.0	2.7	
여자	100.0	54.1	21.6	16.0	2.5	2.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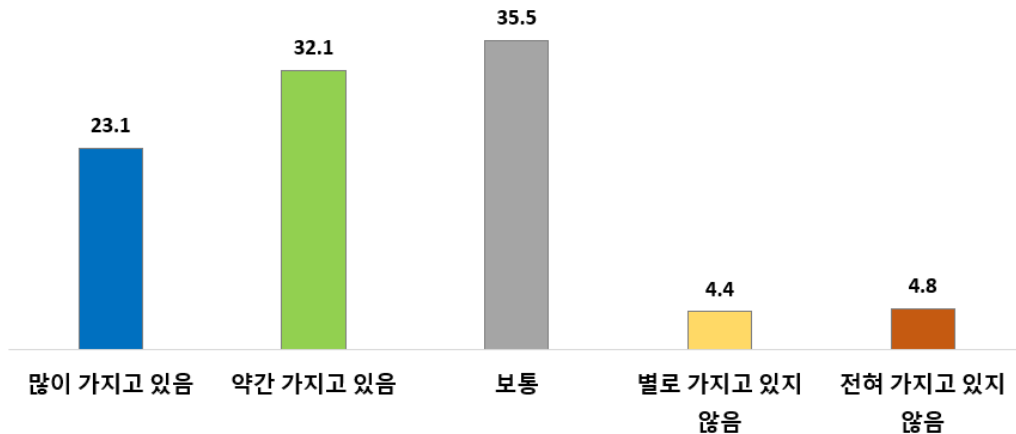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24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지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 「가지고 있음」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보통이다」(35.5%) 응답이 가장 많고, 「약간 가지고 있음」(32.1%), 「많이 가지고 있음」(23.1%) 순으로 나타남.
 - 「가지고 있지 않다」(9.2%)보다 「가지고 있다」(55.3%)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응답은 북부권(62.0%), 서남부권(58.4%), 중부권(41.8%) 순으로 나타남.
 - 소속감과 자부심의 정도는 여자(50.5%)보다 남자(59.4%)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는 「보통이다」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연령대는 「가지고 있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지고 있다」 응답은 60대(60.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표 3-29]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단위: %)

구분	계	많이 가지고 있음	약간 가지고 있음	보통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음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2016년	100.0	14.4	39.0	40.2	5.1	1.3
2017년	100.0	17.9	39.0	37.8	4.0	1.3
2018년	100.0	26.0	40.3	31.4	1.4	0.9
2019년	100.0	28.2	33.3	33.2	4.9	0.4
2020년	100.0	29.5	42.1	25.6	2.4	0.3
2022년	100.0	23.1	32.1	35.5	4.4	4.8
< 지역별 >						
중부권	100.0	12.0	29.8	33.6	7.0	17.6
북부권	100.0	27.1	34.8	29.9	6.7	1.4
서남부권	100.0	26.5	31.9	39.1	2.1	0.3
< 성별 >						
남자	100.0	25.6	33.7	32.4	3.8	4.4
여자	100.0	20.3	30.2	39.2	5.1	5.2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